

인천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개강총회 개최

✎ 이정표 기자 | ⌚ 승인 2021.09.09 10:35



사진 = 인천대학교

[아시아에이=이정표 기자] 인천대학교 문헌정보학과는 지난 2021년 지난 8일 학과와 학생회 공동 주관으로 메타버스 개강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개강총회는 개더타운(gather.town)이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교수진과 재학생들이 아바타로 가상공간에서 만나 상호작용을 하면서 진행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이번 메타버스 개강총회에서는 학생회 사업 소개, 학사운영 안내, 그리고 진로 및 취업 안내가 함께 진행되었다. 학과 사무실을 방문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학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소개가 진행됐다.

또한 취업경력개발원 업무담당자를 초청하여 대학생활 동안 자신의 진로(취업)전략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학생들은 개더타운에 구축된 가상 학과사무실과 취업경력개발원에서 개별적인 상담을 진행했다.

메타버스 개강총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기존의 화상과 음성만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원하는 대로 아바타를 만들어 움직이며 활동을 했기에 더욱 생동적이고 즐거웠던 경험이었다"라며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개강총회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인천대학교 김규환 문헌정보학과장은 올해 말까지 개더타운에 가상의 문헌정보학과를 건립하여 전공수업과 학생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며 또한 가상 도서관을 구축, 가상 세계에서 도서관실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10월에 전국도서관대회가 메타버스에서 개최되는데 인천대학교 문헌정보학과가 한국도서관협회의 파트너 기관으로 선정돼 전국도서관대회 전시공간을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메타버스에 기반한 문헌정보학과와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기대해본다.



이정표 기자 hankyungmedia@naver.com